

# 豐嶺

1989~1990

全州文化院

(文公部 登録番号 第바-962号 登録日字 1981. 8. 10 郵便番号 560-020 隔月発行)

地域文化・地域人情・地域情報

# 靈嶺

51

1989年 8月

특집・지역개발과 문화재 보존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8절〉

\* 編 · 輯 · 後 · 記

□...통권 50호를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삼고 발행하면서 활기찬  
앞날을 다짐했었다. 그런데 51호는 필자들의 사정에 의해 7월 초  
에 들어서야 겨우 원고가 마감되었다.

□...지역개발과 문화재 특집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오리라고 본다. 새마을사업으로 망가지고 매몰되거나 없어진  
문화재급 민속자료를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의 전문학자들께서 제안하신 당위성과 일반 시민들의 충  
고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남원문학회의 특선은 지방문단으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기  
획의도인 바 앞으로 지역별 문인협회 순례특집을 계속 하겠다. 원  
고를 보내주신 남원문학회원은 물론 원고를 모아서 직접 전주에까  
지 오셨던 박종수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宋〉

蘆 嶺 第 51 號 1989 年 8 月

1989 年 7 月 20 日 印刷 / 1989 年 8 月 1 日 發行

《 非 賣 品 》

發行人 · 金 光 鎬

編輯人 · 張 明 洙

(「蘆嶺」編輯委員會)

印刷人 · 咸 清

文公部 登錄番號 · 바-962 號 登錄日字 · 1981 年 8 月 10 日

發行所 · 社 團 全 州 文 化 院  
法 人

全州市 慶園洞 1 街 58 의 4 ☎ 7500

印刷所 · 鮮明印刷社 ☎ 84-0030 · 84-2878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 實踐要綱을 준수한다.

|   |                         |     |
|---|-------------------------|-----|
| 8 | 卷頭隨想 / 開發과 文化的 保存 ..... | 張明洙 |
|---|-------------------------|-----|

특 집 · 지역개발과 문화재 보존

|     |                               |     |
|-----|-------------------------------|-----|
| 10  | 국토개발, 문화유적 조사가 선행돼야 .....     | 金三龍 |
| 16  | 創者존중의 風土조성 앞장서야 .....         | 李炳勳 |
| 23  | 개발과 보호·보존 계획부터 공존해야 .....     | 柳應敎 |
| 30  | 문화재 주변지역은 문화재 우선 개발해야 .....   | 金光瑞 |
| 36  | 문화재 민족위상으로 개발에 앞서야 .....      | 尹德香 |
| 43  | 계화간척 사업으로 사라진 유적 아쉬움 커 .....  | 金炯珠 |
| 51  | 개발과 보존의 성공은 조화에 따라 .....      | 이규창 |
| 56  | 문화유산 많은 적상산성 공원으로 개발 .....    | 白寅周 |
| 61  | 全北의 찬란한 명예 역사에 대한 재조명으로 ..... | 이시연 |
| 68  | 자연 박물관 남원 유형문화재 보존에 힘써야 ..... | 金 鶴 |
| 72  | 망가지고 흩어진 문화재 금지 갖고 지켜야 .....  | 李圭式 |
| 77  | 일상생활에서도 전통습성 갖어야 .....        | 임명진 |
| 82  | 한쪽의 풀·나무·돌 보호에도 애정을 .....     | 朱奉求 |
| 87  | 미지정 문화재도 같고 닦아야 .....         | 李漢基 |
| 92  | “타임캡슐”로 보존 했으면 .....          | 金基敬 |
| 97  | 우리주변의 민속자료를 소중히 보존해야 .....    | 曹俊煥 |
| 104 | 문화유산 숭상하는 개발과 보존은 조화되어야 ..... | 田善子 |
| 111 | 가장 전복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워 .....      | 김명희 |

□ 主題 있는 散文 □

|     |                       |     |
|-----|-----------------------|-----|
| 120 | 李鎬塏칼럼/落書文化에서 獻身까지     | 李鎬塏 |
| 122 | 全州風物記⑩/全州川邊           | 宋榮相 |
| 126 | 醫境/목욕문화               | 柳承國 |
| 128 | 좋은글귀풀이/社稷之臣           | 柳豐淵 |
| 129 | 우리말 우리글/가 멀 다         | 崔昌烈 |
| 130 | 생활과종교/진정한 이웃          | 金榮錫 |
| 132 | 全州名所讀①/完山 七峰 가는 길     | 金永善 |
| 136 | *續「나의 文學 60年」⑥/海剛日記抄  | 曹圭華 |
| 140 | 畫家가 가본 내고장 山河/九千洞 一士壹 | 李方雨 |

※ 南原 文學會 特選 ※

❖ 시

|                       |     |
|-----------------------|-----|
| 곽진구 / 봄에쓰는 일지·여덟째날    | 142 |
| 김광호 / 아카시아 꽃          | 144 |
| 박종수 / 우리들 世代의 되새김질·外1 | 146 |
| 유희옥 / 週末 오후           | 150 |
| 이강현 / 낙 엮             | 152 |
| 최기식 / 봄의 이야기          | 154 |
| 황의성 / 내고향 가제골 3       | 156 |

❖ 수 필

|             |     |
|-------------|-----|
| 김귀녀 / 단상 I  | 158 |
| 송기선 / 쌀 막걸리 | 160 |

❖ 동 화

|                   |     |
|-------------------|-----|
| 오영환 / 아이들 나라의 까까중 | 163 |
|-------------------|-----|

❖ 단편소설

|              |     |
|--------------|-----|
| 황용수 / 작은방 사람 | 167 |
|--------------|-----|

# 쌀 막걸리

송 기 선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신 술의 양은 국민 1인당 평균 5백 ml들이 맥주 50병, 소주 2홑들이 47.2병, 막걸리 18.13ℓ, 위스키 7백ml들이 4분의1병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4천2백만 국민이 골고루 마셨을 경우를 가정한 평균치고, 실제로 술을 못마시는 어린이나 주량이 미미한 여성인구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주당들이 마신 술은 평균치의 2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주류 산업이 이같은 술 소비량에 걸맞게 앞서가 있는 나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이웃 日本만 해도 산토리 위스키가 국제적으로 수준을 자랑하고, 청주나 소주만해도 5백개 이상의 브랜드를 갖고 다양한 술을 국민들에게 맛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주류업체는 국세청의 강력한 규제아래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 어느 한곳 당당히 내세울게 없는 실정이다.

최근 민주화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최소한 지방 토속주만이라도 개발토록 하자는 논의가 일어 금년 1월들어 24개 민속주, 토속주에 대한 제조허가방침이 결정되었을 정도다.

秋分이 지나니 일반 상가보다는 분주한 점을 보이는 곳이 주객들이 찾는 주점이 법석을 이루는 現場을 목격 할 수 있고 또 귀뚜라

미 우는 긴밤을 술로 즐겁게 보내는 손님을 생각하게 된다. 주객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쌀 막걸리가 시판 된지도 벌써 몇 년 마셔본 사람은 쌀 막걸리에 대하여 싱겁다는 주객 막걸리보다 못하다는 주객 여러가지의 주객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도 있고 또 希望과는 달리 주객들에게 失望을 주는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 쌀 막걸리가 시중에 나오기 전에는 술맛이 싱거우나 쓰나 다나 그런데로 즐기며 理想의 꿈과 未來를 상상하며 주도에 의거 용기와 血氣가 용솟음치는 환경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農民들의 값진 피땀으로 이루어진 오곡이 豐年들어 인도에 쌀을 처녀 수출하고도 남아 쌀 막걸리가 나오게 된것은 오로지 농민들의 덕분에 마시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같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줄로 여겨진다.

季節別로 分析해 보면 봄에는 약주를 마시고 여름에는 소주 맥주이고 가을에는 정종 겨울에는 막걸리와 산에 있는 식용 식물과 쌀을 찌서 누룩과 비벼서 약술을 조금 만들어 몸 보신하는 것으로 본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좋은 약이라고 하나 지나치게 과음하면 生命이 짧아 진다고 하였으니 적당히가 꽤 어려운 것이 술 좌석이 아닌가 싶다. 술은 世界的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포도주이고 특히 유럽의 술 역사는 포도주라 말해도 좋은 정도이며 그렇게 본다면 모든 술의 기원은 과실주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술은 人間 역사의 일부를 이루어 왔다고 말 할 수 있고 기쁠 때나 슬픈 때 또 축제 의식 회합 등 生活의 여러부분에서 쓰여 진다고 볼 수 있다. 술은 이렇듯 生活의 모든 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였다.

만약 술이 없었더라면 人類의 역사는 상당히 달라 졌을지도 모른다. 이와같이 술은 食生活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값비싼 술 좋은 안주 내는 이의 부담과 추수하면서 쌀 막걸리를 마시는 농민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

사발에 그득 딸아 웃 입술의 긴 수염을 반쯤 담그고 꿀떡 꿀떡 마신 다음 '크' 하는 소리.....

흙이 묻은 손으로 쓰디쓴 김치를 집어 넣은 다음 왼쪽 불에서 오른 쪽으로 뉘는 모습은 정말 동양에서 찾을 수 없는 장관이다. 마셔

서 즐겁고 반아서 즐거운 미풍! 어디서 마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취하는게 문제이니까?

애주가들을 위해서 人間의 健康을 위해서 양조주 주류 업체에서는  
보다 더 좋은 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객들의 편찬을 받는 주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술을 마시고 흔적이 없는 行動과 등산이나 유원  
지 사찰에서 춤과 노래로 풍기 문란한 행위는 절대 삼가해야 하며 자  
연 보호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고운 술 티가 없는 애주가  
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